

전북문화관광재단, 2017년 업무계획

한국적 문화예술·관광 실현에 중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전라도 천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한국적인 문화예술·문화관광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재단은 문화예술의 부흥 및 건인·문화관광의 신규인 구축·지역자원 활용 관광기반의 구축 등 3대 전략에 따른 총 36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와 소통 확산을 위한 21개 사업, 예술매개 관광활성화와 콘텐츠 발굴을 위한 8개 사업,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및 관광 명소화를 위한 7개 사업 등을 업무계획으로 담았다.

이들 중 올해 신규로 발굴된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기획 청년 교육 프로젝트 '발발공리', 찾아가는 문화관광 상상공연 지원, '전북도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전통문화관광 콘텐츠 이미지 북 제작 특성화, 대신 여행해주는 남자 등 6개 사업은 인력양성·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문화콘텐츠 발굴 등 균형 있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단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재단은 문화예술 활동의 집중현상을 최소화 하고 도민이 다양한 문화향유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14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은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 14개 시군에 지원

맞춤형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개발

문화관광 기반 구축 위한 경쟁력 향상

퇴한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여객선 이용객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관광 상상공연'과 도내 2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전북도 거

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북 맞춤형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개발을 추진한다.

재단은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31호) 제정(2016. 9. 30)에 따른 도내 예술인의 사회적 위상을 세우고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예술인복지 컨설팅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 활동증명' 발급업무는 재단의 도우미제도 운영을 통해 올해도 이어간다. 창작 공간 마련과 창작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북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은 뮤지컬 '심정'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4월에 시작하는 뮤지컬 (심정)(가제)은 전북예술회관에서 상설로 175회 공연되며, 7~9월경에는 아중호수 특별무대에서 실경산수 공연으로 3~5회 가량 펼쳐진다.

재단은 전북 문화관광 기반구축을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도 실행한다.

이에 따른 사업은 도내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및 문화유산답사를 비롯해 기념품 선정 및 판매관 설치운영·홍보 판매가 한데서 이뤄지는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이 진행된다. 10월에는 호남관광진흥협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해 전북 관광활성화 및 관광사업 확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20개 핵심전략 1조4297억원 투입할 것"

원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

전주시는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아시아 Top3 문화도시 도약, 전주형 사람의 경제 구축, 사람중심 복지정책 확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 등 4대 목표 20개 핵심전략을 정하고, 국비 4,331억원을 포함해 총 1조4,29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 Top3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원도심 100만평을 100가지 색깔을 간직한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전주부성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재생하기 위해 국비 등 200억원을 들여 전주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하고 전라감영 복원 등 원도심 100만평을 전통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또 올해부터 2021년까지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음식관광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문화바탕으로 관광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글로벌기업 육성,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탄소를 비롯한 5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사회적경제의 탄실한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전주형 사람의 경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민주도 동네복지를 20개동으로 확대하고 전주형 복지재단 설립, 혁신도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전주 아이숲 확대, 생태놀이터 조성, 장애인 어울림센터 등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 확대도 중요한 전주형복지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장은 "한편을 이어온 전주만의 역사와 정체성, 새로운 것을 싹틔워내는 전주의 실천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전주의 기쁨을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전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주답게 가장 인간적인 도시, 글로벌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흔불문학상 공모 접수 5월 말까지

공모분야는 2000매 이하 장편소설

흔불문학상 공모 접수가 전주 MBC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소설 '흔불'의 작가 최희명희 선생의 예술혼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된 흔불문학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올해로 7회를 맞고 있다.

(사)흔불문화와 전주문화방송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기존 공모마감 기간보다 한 달 앞당겨진 2017년 5월 31일 오후6시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공모분야는 200자 원고지 800매 이상~2000매 이하의 장편소설로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에 한하며, 주제와 소재의 제한이 없다.

응모자격은 신인·기성작가 제한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

시상은 대상 상금 5,000만원과 당선증이 수여되며, 올해 수상작 출간과 함께 10월 중 예술제를 겸한 시상식을 거행 할 예정이다.

한편 제1회 수상작 최훈희 작가의 「난설현」을 비롯해 제2회 수상작 박정운 작가의 「프린세스 바리」, 제3회 수상작 김대현 작가의 「홍도」, 제4회 수상작 박혜영 작가의 「비밀 정원」, 제5회 수상작 이광재 작가의 「나라없는 나라」, 제6회 수상작 박주영 작가의 「고요한 밤의 눈」은 모두 출간되어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문의 063-220-8036. /정해은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한국관광 100선 선정

일제 양곡창고 리모델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수상하는 등 가치 인정받아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올라 한국의 대표관광지로 인정받았다.

10일 군에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은 일제강점기 만경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일제가 수탈하기 위해 임시로 보관하던 양곡창고 자리다.

군은 이 곳을 리모델링해 미디어아트

미술관, 문화카페, 책공방 북아트센터, 책박물관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2016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2016 아시아관광대상, 2014년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2014년 한국농어촌건축대전 본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3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

통령상, 2013년 향토자원 베스트 30선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성과와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은 "한국관광 100선 선정으로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완주의 대표관광명소가 국내외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략적인 관광마케팅을 통해 관광의 중심지로 부각,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우아한 나체들',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초청받아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종직)의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6' 선정작인 '우아한 나체들'(감독 루카스 발렌타 리너)이 제46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브라이언트 퓨처 부문에 공식 선정됐다.

오는 25일~2월 5일 개최되는 제46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는 '유럽의 선댄스'라 불리는 유럽 대륙 내 가장 큰 규모의 독립·대안영화제로 그 위상을 평가 받고 있다.

이번에 초청된 브라이언트 퓨처 부문은 신선한 작품을 발굴하고 떠오르는 신예 감독들을 지원하는 섹션이다. 대담한 연출과 독특한 스타일, 비전을 지닌 재능 있는 감독들을 발굴하여 장편영화 데뷔작 혹은 데뷔한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를 상영한다.

작품은 루카스 발렌타 리너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로 브라이언트 퓨처 섹션 상영작으로 선정돼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6~31일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개최되는 라틴 아메리카 영화 쇼케이스 'Neighboring Scenes' 예선 폐막작으로 선정돼 미국 프리미어 상영을 가질 예정이다.

〈우아한 나체들〉은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이후 토론토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 제22회 시애틀국제영화제, 제40회 상파울루국제영화제, 제22회 제네바국제영화제, 제27회 스톡홀름국제영화제, 제22회 골카타 국제영화제, 제31회 마르 델 플라타 국제영화제 아르헨티나 경쟁부문 최우수감독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해은 기자

따라볼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11일>



▷쥐띠

48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따른다.
60년생: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써라.
72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84년생: 잠만 금전운이 돌아오니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난관이 발생한다.



▷소띠

49년생: 고집은 금물. 타인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다.
61년생: 뒷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73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공과 사를 잘 구별해야 하는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처음에는 원망하나 나중에도 고마워할 일이 생기니 일시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마라.
74년생: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토끼띠

51년생: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6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75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기 좋은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용띠

52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늦게 움직이면 놓치게 된다.
64년생: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고 시비가 발생한다.
76년생: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주시하라.
88년생: 자신보다 어디라고 무시하는 인행은 삼가라.



▷말띠

53년생: 변동이나 변화를 가져온 흥한일이 생기는 운.
65년생: 익숙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77년생: 생각했던 것을 구체화 시켜서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겨보아라.
89년생: 무심코 했던 행동으로 구설수가 발생하고 원망을 살 수 있다.



▷말띠

54년생: 두이 될 것이 없는 날이 될 수 있겠다.
6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인덕이 있는 운이다.
90년생: 동기간에 화합하면 좋은 일이 있을 듯.



▷양띠

55년생: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운.
67년생: 적은 것을 얻었다고 더 큰 것을 욕심내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기분 상할 일이 발생한다.
91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지출이 많아지는 날이다.



▷원숭이띠

56년생: 믿고 있던 것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운이다.
68년생: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며 행동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80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9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 혼자서 해결하라.



▷뱀띠

57년생: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생기니 나서지 말고 인정을 삼가라.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이 있을 운이다.
81년생: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받기 좋은 운이니 적극 진행하라.
9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개띠

46년생: 식욕이 따르고 인덕이 있는 운이니 가벼운 모임은 가저도 길하다.
58년생: 하고자 하는 모든일을 약간 모자르게 해라.
70년생: 뒷사람과의 화합에 신경써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82년생: 건강에 좋지 않은 운이니 섭생에 주의가 필요하다.



▷범띠

47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고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나니 주의하라.
59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이다.
71년생: 순간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마라. 어려움은 곧 풀려질 것이다.
83년생: 두 번, 세 번 봐도 놓치는 것이 생기는 운이다.